

경기북부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첫 연찬회 개최



경기북부장애폴가족지원센터는 9월 11일(목) 경기도북부누림센터에서 ‘경기북부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연찬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북부 8개 시·군 센터 종사자와 시군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나눴습니다.

행사는 유경미 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서울여자대학교 정소연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정소연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센터 확대, 전문인력 확충, 맞춤형 지원, 기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좋은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센터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북부장애폴가족지원센터 -발달지원사업
 ▲구리시장애폴가족지원센터- 심리상담·미술치료 성과,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복지관 부재 지역에서의 허브 역할과 자원 연계 성과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다양한 자조모임 활성화 경험이 공유됐습니다.
 또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포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우수사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사람 중심의 복지’라는 가치를 확인하고 서로 배우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분기 간담회 진행



2025년 7월 14일(월) 13시,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경기북부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 사례(가족돌봄, 부모교육, 발달지원, 문화체험 등)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최



9월 11일(목) 경기북부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소진 예방 힐링프로그램 ‘나만의 감정오일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재 자신의 기분과 감정상태를 향기로 알아보고, 나만의 감정오일을 만들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서 소진예방 및 힐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4차 종사자 교육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경기본부 후원품 전달식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본부장 박우근)는 9월 25일(목) 본 센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본부는 총 3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작은 나눔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장애인가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경미 센터장은 “명절을 앞두고 큰 힘이 될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상품권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고양시 장애인가족 대상 통합사례회의 진행



9월 5일(금) 고양시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교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드림스타트, 고양시장래인종합복지관 등 민·관 협력 기관 담당자가 모여 기관 간 중복 서비스 제공이나 필요한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배분하여 장애인가족의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대상자의 자립 과 회복력 강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5년 문화공감대축제 성료 ‘영화와 음악이 함께한 힐링의 시간’

‘2025년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대축제’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기(9월 12일, 고양·파주)

DMZ국제다큐영화제와 협력해 현대백화점 키텍스점 하늘정원에서 고양·파주 장애인가족 100명을 초청해 야외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도 신청자의 80% 이상이 참여해, 우비를 입고 ‘오야 밴드’ 공연을 즐기고 영화 갠썰아! 엘리스를 관람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특별한 힐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2회기(9월 24일, 경기북부)

의정부 CGV에서 포천, 의정부, 양주, 구리, 남양주 장애인가족 150명이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박찬민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분위기를 이끌었고, 영화 그녀에게 상영 후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장애자녀 양육 경험을 나누며 깊은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 만족도 조사 결과, 80% 이상이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런 기회가 더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센터는 소중한 의견들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자 기능경기대회 개최



9월 4일(목) 성암문화체육비전센터(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자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신청자 3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 8월 20일(수)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1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본선은 전년도와 다른 경정비 문제가 출제되어 난이도가 높아졌으나, 12명의 참가자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여 어느 해보다 높아진 역량을 보여주며 4명이 입상(1등 1명, 2등 1명, 3등 2명)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직무를 더 많이 알리고자 향후에도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휠-마스터 민간자격시험 열려



7월 1일~2일, 휠-마스터 민간자격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이래 연2회 진행하고 있는 휠-마스터 민간자격시험은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 제1차 시험에는 135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시험은 30분간 응시자 1명이 수동휠체어 1대를 사후관리(분해-세척-조립-소독)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관이 평가하게 되며,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7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제2차 시험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